

중국 고동기 鼎의 방제와 경향, 그리고 영향*

이 용 진**

- I. 머리말
- II. 고동기 鼎 방제의 시작, 九鼎 방제
- III. 玩好之物로서의 鼎의 방제
- IV. 鼎 방제의 경향과 영향
- V. 맺음말

I. 머리말

중국의 古銅器는 商代부터 春秋戰國時代까지 고대 중국에서 제작된 鍾鼎彝器를 말한다. 고대 중국에서 고동기는 권력의 상징물이자 지배층을 나타내는 신분의 표식으로 사용되었고, 당시 제작되었던 고동기의 종류는 食器와 酒器 등 다양한 기명들이 제작되었다. 상대적으로 춘추전국시대까지 제작되었던 다양한 기형의 고동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고동기는 鼎으로 九鼎에 관한 기록은 고대 중국에서 정이 갖는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

* 이 글은 2018년 제4회 미술사학대회 <위작, 대작, 방작, 협업 논쟁과 작가의 바른 이름>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글이다.

** 국립중앙박물관

¹ 鼎은 三足과 兩耳로 구성된 고대 중국의 기명으로 권력의 상징물이자 신분의 표식으로 사용되었다. 정은 형태에 따라 圓鼎과 方鼎으로 구분된다. 원정은 상대적으로 춘추전국시대, 방정은 商代 중기부터 西周 중기까지 제작된다.

상대부터 춘추전국시대까지가 고동기를 제작하였던 시기였던 반면, 秦漢代는 고동기를 찾고, 발견하던 시기로 秦始皇은 구정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泗水를 뒤졌고, 漢武帝는 그의 치세 기간 중 정이 발견되자 연호를 元鼎으로 바꾸는 등 정을 상서로운 것으로 인식하였다. 진시황과 한무제의 鼎 관련 기록은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 고동기 鼎은 唐代에 방제가 시작되면서 다시 부상하게 되었고, 宋代에 본격적인 방제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이후의 왕조들에서도 지속적인 방제가 이루어졌다. 고동기 鼎의 방제는 唐代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송대에는 금문의 연구와 예제 개혁의 목적으로 고동기 수집과 방제가 이루어졌고, 이후 고동기를 玩好之物的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고동기 감상을 위한 고동기 도록과 감식서가 편찬되는 등 방제의 목적과 용도가 변화하였다.

鼎의 방제는 상주대에 제작된 정 의 방제가 가장 주요한 흐름이었지만, 명대에는 고동기 鼎을 바탕으로 만든 宣德爐를 만들었고, 선덕로를 방제한 仿宣德爐가 새로운 방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중국 고동기 鼎 방제의 목적과 역사를 살펴보고 방제한 정에 보이는 조형원리와 방제의 경향, 고동기 정 의 방제가 고려와 조선에 미친 영향 등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Ⅱ. 고동기 鼎 방제의 시작, 九鼎 방제

1. 唐 武則天의 九鼎

중국의 鼎 방제의 시작은 唐代 武則天의 집권기로 당시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鼎을 방제하였다. 무측천은 불안한 자신의 정치적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九鼎을 방제하였다. 九鼎은 夏의 禹王이 홍수를 다스리고 天下를 九州로 나누고 九州의 자원을 모아 黃帝가 寶鼎을 만든 荊山에서 만든 9개의 鼎이다.² 九鼎은 구주의 자원과 구주를 대표하는

정의 다리는 뾰족한 尖足에서 기둥 모양의 柱足으로 다시 말굽 모양의 蹄足으로 변화한다. 정의 귀는 구연에 붙은 수직귀와 정의 목에 붙은 옆귀로 나뉜다. 정에 새겨지는 문양은 몸체 중앙에 돌출된 扉稜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² 九鼎에 관한 기록은 『左傳』宣公3年, 『史記』楚世家, 『墨子』耕柱, 『戰國策』周策, 『論衡』儒增編, 『拾遺記』, 『太平御覽』 등에 실려 있다.

동물이 새겨져 있어, 九鼎의 소유는 국가이자 정치권력의 의미가 있다.³ 夏의 九鼎과 같은 왕조의 상징물은 과거의 권위 있는 왕조와 결합되었던 역사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통치자의 합법성을 의미하였다.⁴ 이와 같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춘추전국시대에 구정을 차지하려는 제후들의 투쟁이 있었고, 진시황은 사라진 구정을 찾으려 하였다. 반면 무측천은 구정을 찾기보다는 仿製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구정에 담긴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려 하였다.

『舊唐書』와 『新唐書』에는 무측천의 九鼎 仿製에 관한 기록이 있다. 『舊唐書』 권6 『武則天本紀』에는 “夏四月, 鑄九鼎成, 置于明堂之庭”, 『新唐書』 권4 『則天本紀』에는 “四月戊辰, 置九鼎于通天宫”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구당서』와 『신당서』에는 697년 4월 구정 방제에 관한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구정을 안치하였던 장소에 대해서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 『구당서』의 明堂은 『신당서』의 통천궁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舊唐書』 권22 『禮儀志』 2에도 697년 2월 九鼎을 방제하여 明堂의 마당에 배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⁵ 이 기록에서 흥미로운 것은 무측천이 자신의 九鼎에 夏의 우왕처럼 九州의 지명을 부여한 것이다. 가장 큰 神都鼎은 높이 1丈 8尺으로 永昌이라 이름을 붙였고, 나머지 8개의 정은 1丈 4尺으로 冀州는 武興, 雍州는 長安, 兗州는 日觀, 青州는 少陽, 徐州는 東原, 揚州는 江都, 荊州는 江陵, 梁州는 成都라 붙였다(Table 1). 그러나 방제한 구정이 圓鼎인지 方鼎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⁶

〈Table 1〉 夏禹의 九鼎과 武則天의 九鼎 비교
Comparison of Nine Dings of Xia Wu and those of Wuzetian

Xia Wu Nine dings	Shen du ding	Jizhou	Yong zhou	Yan zhou	Qing zhou	Xu zhou	Yang zhou	Jing zhou	Liang zhou
Wuzetian Nine dings	Liang zhou	Wuxing	Changan	Riguan	Shao yang	Dong yuan	Jiang du	Jiang ling	Chengdu
Size	1zhang 8chi	1zhang 4chi	1zhang 4chi	1zhang 4chi	1zhang 4chi	1zhang 4chi	1zhang 4chi	1zhang 4chi	1zhang 4chi

3 張光直著·이철譯, 『신화 미술 제사』(東文選, 1997), pp. 155-158.

4 張光直著·윤내현譯, 『商文明』(민음사, 1993), p. 265.

5 『舊唐書』 卷22 『禮儀志』 2, 鑄銅為九州鼎, 既成置於明堂之庭, 各依方位列焉, 神都鼎高一丈八尺, 一千八百石, 冀州鼎名武興, 雍州鼎名長安, 兗州名日觀, 青州名少陽, 徐州名東原, 揚州名江都, 荊州名江陵, 梁州名成都, 其九州鼎高一丈四尺, 各受一千二百石.

6 夏나라 禹王이 만들었다는 九鼎과 697년에 방제한 九鼎의 형태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方鼎의 경우 상대 중기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夏禹의 구정은 圓鼎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697년 방제한 구정도 圓鼎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측천의 九鼎 방제는 단순한 방제가 아니라 하나라 우왕이 九州의 자원을 모아 九鼎에 九州의 이름을 부여한 것과 같은 방식을 취하였고, 九鼎에 담긴 정치적 의미를 통해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었다.

2. 宋徽宗의 九鼎

당대 무측천에 이어 宋代에도 九鼎의 방제는 진행되었다. 宋의 8대 황제 徽宗(재위 1100~1125)은 불안했던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제개혁과 함께 九鼎을 방제하였는데, 『宋史』에는 휘종의 九鼎 방제에 관한 기록이 있다.

『宋史』 권20 「徽宗本紀」에는 “甲申奠九鼎于九成宮”이라는 기록이 있고, 『宋史』 권66 「五行志」에도 “崇寧四年三月鑄九鼎用金甚厚取九州水土內鼎中既奉安于九成宮”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휘종은 1104년에 九鼎을 방제하고, 1105년 九成宮에 안치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구성궁에는 9개의 실이 있어 중앙은 帝鼎, 동쪽은 蒼鼎, 남쪽은 彤鼎, 북쪽은 寶鼎, 동북은 牡鼎, 동남은 岡鼎, 서남은 阜鼎, 서쪽은 晶鼎, 서북은 魁鼎으로 이름을 붙였다(Illustration 1).

휘종은 政和 3년인 1113년과 8년인 1118년에도 九鼎을 다시 방제하였는데, 송 휘종의 고동기 방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2).

휘종의 이와 같은 일련의 九鼎과 고동기 방제는 송대 예제개혁과 함께 진행한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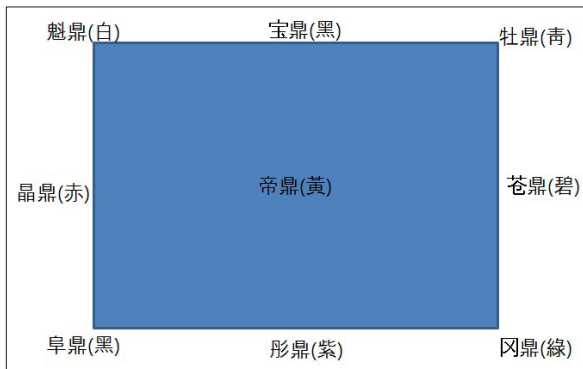


Illustration 1. 九成宮에 안치된 송 휘종의 九鼎
Nine Dings enshrined in Jiuchenggong

예제개혁과 九鼎의 방제는 권력 강화에 목적이 있었다.

당대 무측천과 북송 휘종은 자신들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九鼎을 방제하였다. 그들은 과거의 권위 있는 왕조와 결합되었던 역사를 지닌 九鼎의 방제를 통해 천하를 지배하기 위한 정당성을 찾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宋徽宗 연간(1100-1125)의 고동기 방제⁷

Imitating Old Chinese Bronze Vessels during the Huizong era(1100-1125)

Years	Historical Facts
Chongning 4th (1104)	Imitating Nine Dings
Chongning 5th (1105)	Producing Dashengbianzhong, Nine Dings enshrined in Jiuchenggong
Zhenghe 3rd (1113)	Imitating Nine Dings
Zhenghe 6th (1116)	Producing Zhenghe ding
Zhenghe 8th (1118)	Imitating Nine Dings
Xuanhe 3rd (1121)	Producing Xuanhe zun

Ⅲ. 玩好之物的 대상으로서의 鼎 방제

송대 고동기 수집은 사대부들의 금석문 연구와 황실 예제개혁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夏商周三代를 유교적 이상으로 삼은 송대 사대부들은 삼대의 고동기가 역사적 자료일 뿐만 아니라 역대 문헌의 잘못을 수정할 수 있고, 삼대의 예기로 當代의 제도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⁸ 劉敞을 비롯해 歐陽修, 呂大臨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古器物 연구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성과를 수록한 다양한 서적을 편찬하였는데, 류창의 『先秦古器記』, 구양수의 『集古錄』, 여대임의 『考古圖』(Fig. 1) 등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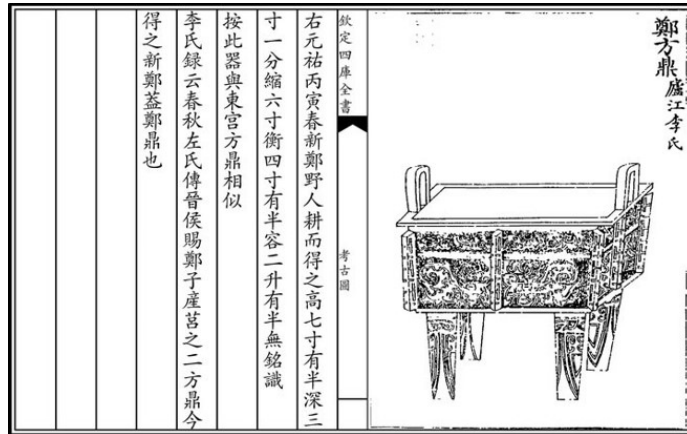


Fig. 1. 〈考古圖〉, Kaogutu, Lu, Dalin, Northern Song 1092

⁷ 〈표 2〉 송대 휘종 연간의 고동기 방제는 陳芳妹 교수의 『宋古器物學的興起與宋仿古銅器』, 『美術史研究集刊』 10 期(國立臺灣大學, 2001)와 宋史의 기록을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하였다.

⁸ 許雅惠, 『南宋金石收藏與中興情結』, 『美術史研究集刊』 第31期(民國100年), p.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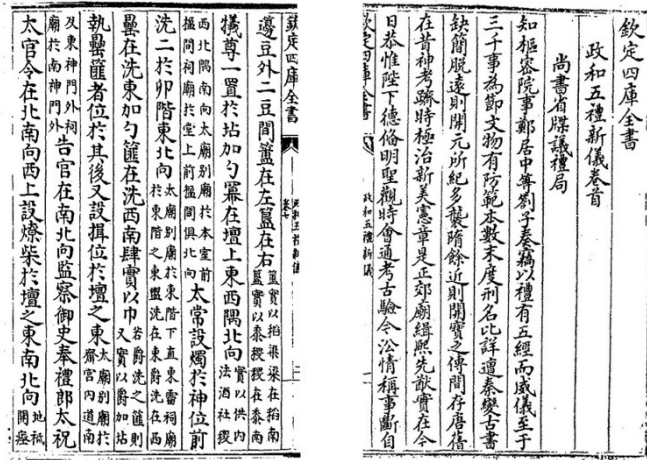


Fig. 2. 〈五禮新儀〉, New forms for the five Categories of rites of the Zhenghe era, Northern Song 1113

반면 송 황실에서는 예제개혁의 일환으로 고동기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예제개혁을 진행하였다. 예제개혁에 가장 적극적으로었던 인물은徽宗으로 그는 大觀 元年(1107) 尚書省에 議禮局을 설치하였고,⁹ 大觀 2年(1108)에는 薛昂의 건의를 받아들여 천하의 고동기를 수집하도록 하였다.¹⁰ 또한 수집한 고동기와『三禮圖』를 바탕으로 政和 3년(1113) 『五禮新儀』를 편찬하도록 하였다(Fig. 2).

회중은 고동기 수집뿐만 아니라 仿製도 진행하였다.『오례신의』편찬에 앞서 大晟樂을 만들고 이와 관련된 〈大晟編鍾〉(Fig. 3)도 제작하였는데, 당시 발견된 춘추전국시대의 〈宋公成鍾〉을 바탕으로 1105년에 방제하였다.

政和 6년(1116)에는 〈政和鼎〉(Fig. 4), 宣和 3년(1121)에는 〈宣和尊〉을 주조하였다.



Fig. 3. 〈大晟編鍾〉, Dashengbianzhong, Northern Song 1105, (L) h. 28.2cm, (R) h. 27.4cm, Taiwan National Palace Museum

⁹ 『宋史』卷20 本紀第20 徽宗1 大觀元年正月條, “庚子, 復置議禮局於尚書省.”

¹⁰ 『宋史』卷98 志第51 禮1, “宣和初, 議禮局之置也, 詔求天下古器, 更制尊、爵、鼎、彝之屬.”



Fig. 4. 〈政和鼎〉, Zhenghe Ding, Northern Song 1116, h. 23.0cm, Taiwan National Palace Museum



Fig. 5. 〈宣和博古圖〉, Xuanhebogutu, Northern Song Xuanhe era (1119-1125)

〈政和鼎〉과 〈宣和尊〉은 〈대성편종〉과는 다르게 특정한 모본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보다는 당시 송 황실에서 소장하고 있던 정과 준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¹¹ 〈政和鼎〉과 〈宣和尊〉은 비룡을 중심으로 도철 등의 문양을 대칭으로 표현하였고, 뇌문을 보조문양으로 사용하고 주문양을 돌출시키는 이층화의 구조를 한 것으로 보아 상대후기의 鼎과 尊을 모본으로 삼아 방제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집한 고동기를 바탕으로 宣和年間(1119-1125)에 고동기 도록인 『宣和博古圖』 편찬을 명하였다. 『宣和博古圖』는 선화 연간 휘종의 명에 의해 王黼이 편찬한 고동기 도록으로 수집한 고동기를 20가지 기형으로 분류하고, 모두 839건의 고동기를 포함시켰다(Fig.5).

이처럼 송대 사대부와 황실이 중심이 된 고동기 수집은 再現三代와 예제개혁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고동기 수집의 목적은 玩好之物로 변화하였고, 이후 송대 사대부들의 고동기 수집과 감상의 계기가 되었다.¹² 남송의 사대부들도 고동기를 玩古의 대상으로 생각하였고, 삼대의 고동기는 그들의 일상생활이 되었다.¹³ 일상화된 고동기는 사대부들의 독서와 취미 생활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明窓淨几’라고 하는 사대부의 책상에는

¹¹ 이용진, 『宋代工藝批評書들과鑑識眼』, 『미술사학』30(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5), p. 350.

¹² 원종필, 『송대 문인들의 금석기물에 대한 인식 고찰-금석기물 관련 저술의 序跋文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中國人文科學』40(중국인문학회, 2008), p. 548.

¹³ 陳芳妹, 『追三代於鼎彝之間-宋代之考古から玩古への展開について』, 『美術研究』391(東京文化財研究所, 2007), p. 184.

독서분향을 위해 鼎이 향로로 사용되었고, 화훼에는 觚를 꽃병으로 사용하는 등 고동기의 용도 변화도 있었다. 이처럼 고동기의 일상화와 함께 진작과 위작을 구분하기 위한 감식서의 편찬도 이루어졌는데, 趙希鵠의 『洞天清錄集』(Fig. 6)과 周密의 『雲煙過眼錄』(Fig. 7) 등이 대표적이다.

『洞天清錄集』은 1242년에 편찬된 감식서로 古琴, 古硯, 古鍾鼎彝器 등 열 가지 부문에 대한 감식을 다룬 책이다. 조희곡은 『동천청록집』 「古鍾鼎彝器辨」에서 삼대 고동기의 形製와 땅과 물속, 전세된 고동기의 진위여부, 고동기의 냄새, 款識 및 위작의 제작방법 등으로 나누어 고동기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였다.¹⁴ 특히 『洞天清錄集』 「古銅瓶鉢養花果條」에는 땅속에 오래있던 고동기는 土氣를 깊이 받아들여 꽃이 잘 자라고 선명하다고 언급하고 있어 화훼에 고동기를 사용한 이유를 설명하였고 있다.¹⁵

周密의 『雲煙過眼錄』은 남송말 원초 중국 강남에서 유전되던 방대한 서화골동품에 대한 품평과 이력에 대해 기록한 책이다. 『운연과안록』은 『동천청록집』처럼 고동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당시 사대부들이 소장하고 있던 서화와 고동에 대한 현상을 주로 기록하였고, 소장품의 평가에서 위작 여부를 판단하였다.



Fig. 6. <洞天清錄集>, *Dongtian qingluji*, by Zhaoxigu, Southern Song 1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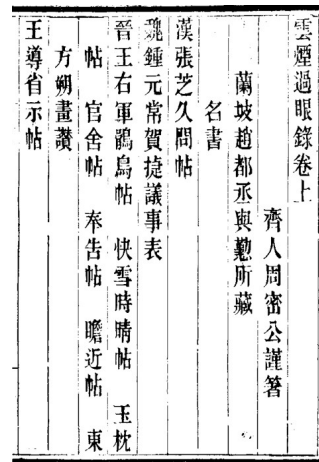


Fig. 7. <雲煙過眼錄>, *Yunyan guoyanlu*, by Zhou Mi, 1292

¹⁴ 이용진, 앞의 글(2015), pp. 355-358.

¹⁵ 趙希鵠, 『洞天清錄集』 「古鍾鼎彝器辨」, 古銅瓶鉢養花果條, 古銅器入土年久 受土氣深 以之養花 花色鮮明, 文淵閣四庫全書 871, 子部 177, 雜歌類(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72(1983), p. 12.

남송대 사대부들의 고동기 수집과 감상은 고동기를 학문의 대상이 아닌 완호지물의 대상으로 본 구양수의 인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풍조에 편승해 남송대에도 鼎을 비롯한 고동기의 방제가 이루어졌고,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감식서의 편찬 등 전대와는 다른 경향으로 전개된 것을 알 수 있다.

IV. 鼎 방제의 경향과 영향

1. 鼎 방제의 조형성과 방제의 경향

송대부터 시작된 고동기의 일상화는 鼎의 용도 변화를 가져와 권력과 신분의 상징물 보다는 明窓淨几를 위한 향로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표적인 향로로 자리매김 하였다. 남송대의 방제 정은 북송대와는 다른 경향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江西省 宜春寤藏 출토 鼎은 북송 휘종대에 방제한 정과는 다르게 목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귀는 몸체 옆에 붙은 옆귀이고, 몸체의 문양도 비릉 없이 전면에 걸쳐 시문하고 있으며, 다리 또한 기동형의 주족이나 발굽형의 제족이 아닌 獸脚의 형태를 하고 있어 북송대의 방제 鼎과는 차이를 보인다(Fig. 8). 이러한 기형과 문양은 남송대에 방제한 鼎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송대의 鼎 방제는 특정한 鼎의 방제보다는 三足과 兩耳라는 鼎의 기형적 특징을 충실히 반영한 방제가 이루어졌고, 재질에 있어서도 청동 위주의 방제가 진행되었다.

송대 이후 元, 明, 清代에도 향로로 사용하기 위한 鼎의 방제는 지속되었다. 원대의 방제 鼎의 경향은 形을 위주로 제작하여 三足과 兩耳를 갖춘 정외 기형적 특징만 유지하고 문양은 생략하는 경향을 보인다. 元代의 방제한 鼎을 대표하는 것은 신안선 출수 鼎形香爐로 몸체는 鬲을 닮았지만, 양이는 반원형의 새끼줄 모습으로 되어 있어 원대 사람들이 선호했던 방제 鼎의 양식을 알 수 있다(Fig. 9).



Fig. 8. 〈青銅鼎〉, Bronze Ding, Southern Song-Early Yuan period, founded at Yichun, Jiangsu-sheng, Yichun City Museum



Fig. 9. <청동정형향로>, Bronze Ding-shaped Incense burner, founded at Sinan Shipwreck, Yuan 14th century, h. 10.7cm, National Museum of Korea

반면 明清代에는 元代와는 다른 방제 鼎이 제작된다. 명청대 방제 정은 形과 款識를 유지한 商周代의 鼎을 방제한 것과 形만 유지한 새로운 기형의 방제 경향으로 전개되었다.

形과 款識를 유지하며 방제한 것은 <商召夫鼎>과 <周文王鼎>으로 이 두 가지 鼎은 상대와 주대를 대표하는 鼎이라 할 수 있다. <商召夫鼎>은 『선화박고도』 권1에 수록되어 있는 상대의 방정으로 몸체 안쪽에 亞字形틀을 만들고 그 안에 ‘召夫’와 子, 辛, 月을 음각으로 새겼다(Fig 10). 『선화박고도』에는 召父를 廟器로 해석하고 있어 <상소부정> 방제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고, 形과 款識를 유지한 채 방제가 되었다. 북경 고궁박물관 소장 옥제 <상소부정>은 乾隆年間(1736~1796)에 방제한 것으로 세부적인 표현은 차이가 있지만, 『선화박고도』 <상소부정>의 형과 관지를 따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11).

<주문왕정>은 『선화박고도』 권2에 수록되어 있는 周代의 方鼎으로 『선화박고도』에는 周公이 아버지인 周文王을 제사지내기 위해 만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Fig. 12).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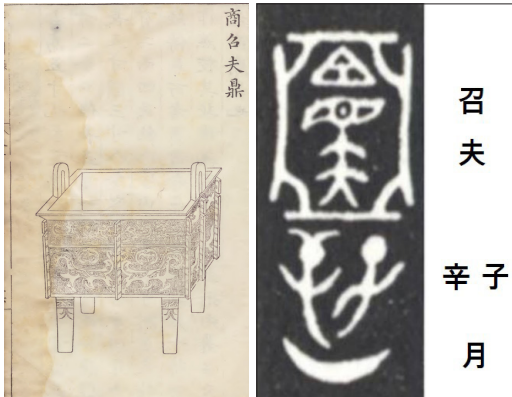


Fig. 10. 『宣和博古圖』 권1의 <商召夫鼎>, Square Cauldron for Father Zhao of Shang in Xuanhebogutu Chap. 1



Fig. 11. <玉製商召夫鼎>, Shangzhaofuding of Jade, Qinglong era (1736-1795), h. 25.1cm, Beijing Palace Museum

¹⁶ 『宣和博古圖』卷2, 「周文王鼎」, 文淵閣四庫全書 840, 子部 146, 譜錄類(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72(1983),



Fig. 12. 『宣和博古圖』 권2의 <周文王鼎>, Square Cauldron for King Wen of the Zhou in Xuanhebogutu Chap.2



Fig. 13. <周文王鼎>, Zhouwenwang ding, Ming dynasty, h. 14cm, Taiwan National Palace Museum

<주문왕정>은 내부에 ‘魯公作文王尊彝’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문왕이 아버지인 주공을 위해 만든 유교적 명분이 있기 때문에 명청대에도 많은 방제가 이루어졌다.¹⁷

대만 고궁박물관 소장 명대의 <주문왕정>은 熱河의 行宮에 있었던 것으로 전하고 있으며, 『선화박고도』 권2의 <주문왕정>을 그대로 방제한 것으로 추정된다(Fig. 13). 몸체 상부에는 한 마리의夔, 하부에는 饗饗이 비룡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표현되어 있고, 명문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반면 청대의 <옥제주문왕정>은 명대의 <주문왕정>과는 달리 몸체에는 도철만을 표현하고 있어 같은 방제이지만 일부 구성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Fig. 14).



Fig. 14. <玉製周文王鼎>, Zhouwenwang ding of Jade, Qing dynasty, h. 18.6cm, Taiwan National Palace Museum

pp. 404-405.

¹⁷ 許雅惠, 『新舊與雅俗-晚明的古銅器鑑賞』, 『故宮文物月刊』414期(臺灣故宮博物院, 2017), pp. 34-39. <주문왕정>은 17~18세기에 청동뿐만 아니라 玉과 琺瑯, 자기로도 제작될 정도로 많은 방제가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내부의 명문과 함께 高濂의 『遵生八牋』 『論古銅器具取用』에서 ‘上賞’으로 평가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방제 〈주문왕정〉은 형과 관지를 따르고 있으며, 편족과 방형의 몸체라는 기형적 특징과 명문은 『선화박고도』의 〈주문왕정〉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문왕정〉의 방제도 〈상소부정〉처럼 형과 관지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상소부정〉과 〈주문왕정〉은 상주대를 대표하는 방정이기도 하지만, 명청대 방제 과정에서도 형과 관지를 일관되게 유지한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形만 유지한 것은 명 선덕 연간에 제작된 〈宣德爐〉이다(Fig. 15). 宣德爐는明代 郊壇과 太廟 및 황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향로로 명대 宣德 3年(1428) 泰國에서 보낸 風磨銅과 일본의 아연을 주성분으로 하여 宣德 3年(1428)과 宣德 4年(1429) 3번에 걸쳐 18,000여 점을 주조하였다. 선덕로는 제작 당시 『考古圖』와 『선화박고도』, 당시 내부에 소장한 향로와 鼎彝를 참고로 하여 제작하였다.¹⁸

宣德爐는 황실 이외에 고위관료 및 사찰과 道觀에 하사되었고, 하위관료 및 민간에서도 宣德爐의 소유 열기가 생기면서 명대부터 仿製品들이 제작되었다.明代末期 宣德爐의 90%는 방제품이었을 정도로 宣德爐의 仿製는 성행하였고,清代에는 민간에서 보편적으로 宣德爐를 소유할 정도로 유행하였다.¹⁹ 선덕로는 삼족과 양이라는 鼎의 形만 유지하고 있을 뿐 관지는 생략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선덕로의 방제가 제작 당시부터 이루어지면서 고동기 鼎과는 다른 새로운 款識를 표현한 방제품들이 제작되어 선덕로의 방제는 또 다른 변이를 낳은 새로운 유형의 鼎이라 볼 수 있다(Figs. 16, 17).



Fig. 15. 〈宣德爐〉, Xuande lu, Ming Xuande 3th-4th (1428-1429), h. 7.6cm, Taiwan National Palace Museum

¹⁸ 田艺景, 「浦松齡墓出土宣德爐淺說」, 『浦松齡研究』, 2015, p. 135.

¹⁹ 張光遠, 「大明宣德爐」, 『故宮文物』32(臺灣故宮博物院, 1985), pp. 4-15.



Fig. 16. 〈宣德爐〉, *Xuande lu*, Ming dynasty, h. 11.2cm, Taiwan National Palace Museum



Fig. 17. 〈宣德爐〉, *Xuande lu*, Qing dynasty, h. 5.9cm, Taiwan National Palace Museum.

2. 고려와 조선에 미친 영향

12세기 전반 북송의 고동기 수집과 방제, 고동기 도록인 『선화박고도』의 편찬은 고려에도 영향을 미쳤다. 북송의 고동기 수집과 방제의 열기에 대한 고려의 수용방식은 북송과 같이 수집과 감상이 아닌 고동기 도록을 통한 방제의 경향으로 진행되었다.

고려에서는 『선화박고도』의 〈상소부정〉을 청자로 충실하게 방제한 〈청자도철문정형향로〉를 만들었다(Fig. 18). 이 정형향로는 『선화박고도』를 모본으로 하여 제작한 것으로 크기와 문양, 내부의 명문까지 동일하게 방제하였다. 특히 내부에는 〈상소부정〉과 같은 ‘召夫’ ‘子’ ‘辛’의



Fig. 18. (Left) 〈청자도철문정형향로〉, *Celadon ding-shaped incense burner*, Koryo 12th century, h. 18.4cm, National Museum of Korea. (Right) 『선화박고도』 권1의 〈상소부정〉, *Square Cauldron for Father Zhao of Shang*, in *Xuanhebogutu* Chap. 1

명문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Fig. 18-1).²⁰

고려에서 『선화박고도』의 <상소부정>을 청자로 방제한 것은 명문인 召夫를 廟器로 간주한 『선화박고도』의 해석을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의례용 향로로 만들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중국 명청대의 경향을 따른 방제한 鼎을 사용하였다. 특히 왕실과 경화 세족을 중심으로 서화고동의 수집과 감상의 취미가 유행하였다. 정조를 비롯한 이하곤, 김광수, 이유원, 신위 등은 고동기 鼎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들이 소장하였던 고동기의 목록에는 주문왕정과 선덕로가 포함되어 있었다(Table 3).

주문왕정은 조선후기인 18세기 중반 조선에 유입되었는데, 이윤영의 『丹陵遺稿』卷9에는 1749년 이윤영이 吳瓚(1717~1751)의 서재인 山天齋에서 주문왕정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다.²¹ 이외에도 『澁軒書』와 『熱河日記』 등에도 주문왕정에 대한 기록이 있어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주문왕정에 대한 인식과 함께 수집과 감상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澁軒書』외집 7권 燕記 張石存條에는 홍대용이 銀 3냥 2돈을 주고 文王鼎 2개를 사 가지고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다.²² 『熱河日記』 『古董錄』에는 박지원이 인식한 방고동기의 등급과 구입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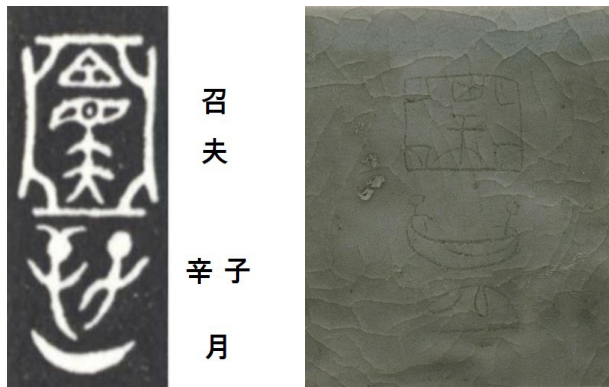


Fig. 18-1. (Left) <상소부정>의 명문, Inscriptions of Shangzhaofu ding, (Right) <청자도칠문정형향로>의 명문, Inscriptions of Chôngja dochölmun chôngachöngng-hyanglo

²⁰ 이용진, 「고려시대 정형청자 연구」, 『미술사학연구』252(한국미술사학회, 2006), pp. 159-160.

²¹ 李胤英, 『丹陵遺稿』卷9 丹陵錄, 往在己巳冬. 敬父報梅花開. 余與元靈諸人. 往會山天齋中. 梅龕鑿圓竅. 障以雲母. 白葩英英. 如在月中. 其傍奠文王鼎. 他古器數種. 亦清楚可意.

²² 洪大容, 『澁軒書』外集7卷 燕記 張石存, 題云印史. 皆印歷代名人印章. 金譯請買而不聽. 以銀三兩二錢. 買文王鼎二而歸.

〈Table 3〉 조선 후기 고동기 소장자와 소장품²³

Old Chinese Bronze Vessels Collectors and Collections of late Joseon period

Collector	Collections
King Jeongjo (1776-1800)	Wenwangding, Xuandelu
Ihagon (1677-1724)	Shang yi Zhou ding
O chan (1717-1751)	Wenwangding
Seo myeongseon (1728-1791)	Ding Yi
Hong daeyong (1731-1783)	Wenwangding
Nam gongcheol (1760-1840)	Ding Yi
Kim josoong (1765-1832)	Tongding
Hong gyeongmo (1774-1851)	Baiyutaotiewenxianglu
Iyoowon (1814-1888)	Daminglu
Sin wi (1869-1845)	Xuandelu

말아야 할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²⁴

정조는 세자시절 주문왕정과 선덕로를 소장하고 있었는데, 『弘齋全書』 권4「春邸錄」4記〈太湖石記〉에는 1774년 정조가 태호석을 구해 창문 앞에 藥罐·香甌·文王鼎·宣德爐를 배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⁵ 정조의 소장품의 하나였던 선덕로도 18세기 중반경 조선에 유입되어 있었다. 『英祖實錄』에는 1751년 동지사로 갔던 사행이 얻어온 향로가 선덕로였음을 기록하고 있다.²⁶ 이외에 이유원의 소장품에도 大明爐가 포함되어 있고, 『연암집』 등에도 宣德爐에 관한 내용이 있어 조선 후기 선덕로에 대한 인식과 유입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²⁷

조선 후기에 유입된 〈주문왕정〉과 〈선덕로〉는 원본을 방제한 방제본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조가 龍珠寺에 하사한 〈주문왕정〉은 황동으로 만들었고, 편족과 방형의 몸체로 구성된

²³ 〈표 3〉 조선 후기 고동기 소장자와 소장품은 필자의 「조선 후기 古銅器 수집과 감상」, 『東洋美術史學』 7(동양미술사학회, 2018)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²⁴ 朴趾源, 『熱河日記』 「古董錄」, 文王鼎·召父鼎·亞虎父鼎·此商周上賞·周王伯鼎·單徒鼎·周豐鼎·皆唐天寶中局鑄體小·最宜書齋薰燎·商父乙鼎·父己鼎·父癸鼎·商子鼎·秉仲鼎·饗饗鼎·李婦鼎·商魚鼎·周益鼎·商乙毛鼎·父甲鼎·此皆元時姜娘子倣鑄·周大叔鼎·周繹鼎·俱堪入書室清供·鼎爐之環耳儻口·爪腹鷄腿·皆爲下品·不堪入玩·勿取可也·朴趾源의 『熱河日記』 「古董錄」에 대해서는 이윤진, 앞의 글(2018), pp. 130-132. 참조.

²⁵ 『弘齋全書』 권4「春邸錄」4記〈太湖石記〉, …歲甲午春·得之古苑·薰而沐之·置之晴窓之前·與藥罐·香甌·文王之鼎·宣德之爐.

²⁶ 『英祖實錄』卷74 英祖 27년 7月 21日條.

²⁷ 『燕巖集』卷3 孔雀館文稿筆洗說, 夫書畫古董·有收藏鑑賞二家·無鑑賞而徒收藏者·富而只信其耳者也·善乎鑑賞而不能收藏者·貧而不負其眼者也·東方雖或有收藏家·而載籍則建陽之坊刻·書畫則金閨之贖本爾·栗皮之爐以爲微而欲磨·藏經之紙以爲澆而欲洗·逢濫惡則高其值·遺珍秘而不能藏·其亦可哀也已.

주문왕정의 기형적 특징과 ‘魯公乍文王尊彝’의 관지를 따르고 있다(Fig. 19).²⁸ 정조가 용주사에 하사한 <선덕로>는 ‘大明宣德年製’의 관지를 통해 선덕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8각의 몸체에는 팔경을 새기고 萬歲樂이라는 명문을 새기는 등 또 다른 변형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Fig. 20).



Fig. 19. (Left) <周文王鼎>, *Zhouwenwang ding*, Qing dynasty, h. 31cm, Gyeonggi-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1, Yongjusa temple, **(Right)** (左)의 명문 ‘魯公乍文王尊彝’, Inscriptions of left figure, ‘Duke Lu [had] this vessel made for [his father] King Wen [of Zh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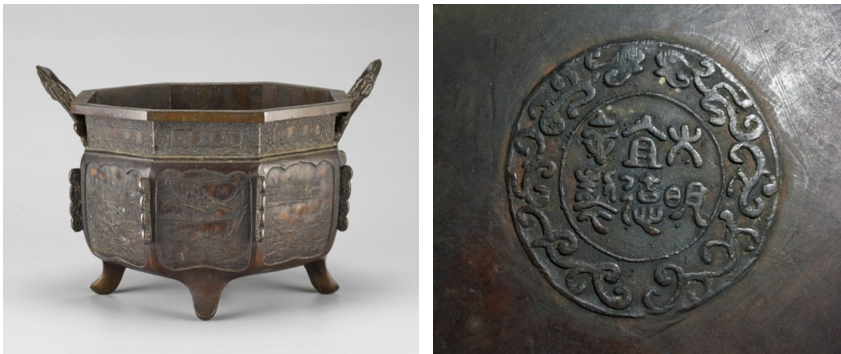


Fig. 20. (Left) <宣德爐>, *Xuande lu*, Qing dynasty, h. 20.5cm, Gyeonggi-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2, Yongjusa temple. **(Right)** (左)의 명문 ‘大明宣德年製’, Inscriptions of left figure, ‘Made in the Xuande era of the Great Ming’

²⁸ 용주사 소장 <주문왕정>과 <선덕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유경희·이용진, 「용주사 소장 정조대 왕실 내사품」, 『미술자료』 88(국립중앙박물관, 2015), pp. 135-138.

고령 김씨 松巖公派에 전세되어 온 <선덕로>는 명대 선덕연간에 제작된 선덕로와는 완전히 다른 形을 보이고 있고, 款識도 ‘大明宣德年制’로 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Fig. 21). 정조가 용주사에 하사한 <선덕로>와 고령 김씨 송암공파의 전세 <선덕로>는 방제본 선덕로를 다시 방제한 새로운 형의 선덕로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방제 정의 사용은 고동기 수집과 감상의 일환이었고, 고려시대처럼 직접적인 방제보다는 중국에서 방제한 문왕정과 선덕로를 구입해 사용했던 것이 새로운 경향이었다.



Fig. 21. (Left) <고령 김씨 송암공파 전세 선덕로>, *Xuanle lu of Songam gong branch from the Koryŏng Kim's Clan, Qing dynasty, (Right)* (左)의 명문 ‘大明宣德年制’, *Inscriptions of left figure, ‘Made in the Xuande era of the Great Ming’*

V. 맺음말

중국 고동기 鼎의 방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대 무척천을 시작으로 송대 휘종의 九鼎 방제는 불안한 권력을 안정시키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송대 사대부들이 고동기를 연구에 대상에서 완호지물로 인식하면서 鼎을 비롯한 고동기는 일상생활의 대상이 되었다. 鼎은 일상화된 明窓淨几의 하나인 향로로 용도가 바뀌었고, 수요가 많아지면서 鼎의 방제는 많아졌다. 宋元代 鼎의 방제는 삼족과 양이라는 정의 기형적 특징을 충실히 따른 방제를 하였고, 재질은 청동을 위주로 원대에 자기로 만든 방제 정도 제작하였다.

명청대에는 形과 款識를 유지한 <상소부정>과 <주문왕정> 등의 방제와 함께 관지는

생략하고 形만 유지한 <선덕로>의 제작이 주요한 흐름이었고, 선덕로의 유행에 따른 선덕로를 방제한 仿宣德爐가 제작되었다. 鼎의 방제는 形과 款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조형의 원칙이었지만, 명대 선덕로는 形만 유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덕로의 등장은 또 다른 방제를 가져와 선덕로를 변형하여 형과 관지를 모두 갖춘 선덕로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명청대의 鼎 방제는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전통의 확립의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이며, 방제의 재질에 있어서도 청동을 비롯해 황동과 자기, 옥 등 재질도 확대되었다.

중국의 고동기 鼎 방제는 고려와 조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송의 영향을 받은 고려는 『선화박고도』의 상소부정을 방제한 청자 상소부정을 만들었는데, 召夫를 廟器로 해석한 『선화박고도』를 따라 향로로 제작하였고, 고려화된 靑磁鼎의 방제가 이루어졌다. 조선 시대에는 문왕정과 선덕로가 주요한 수집과 감상의 대상품이 되었고, 청에서 제작한 방제 문왕정과 선덕로가 유입, 사용되었다.

중국 고동기 鼎의 방제는 공예품의 사용 경향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으며, 방제가 또 다른 방제를 낳고 보편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key words)** 방제(仿製, Imitating Ancient Bronze Vessel), 구정(九鼎, Nine Tripod Ding Vessels), 무측천(武則天, Empress Wu), 휘종(徽宗, Emperor Huizong), *Xuanhe bogutu*(Illustrated Catalogue on the Ancient Vessels of the Xuanhe Reign), 상소부정(商召夫鼎, Square Cauldron for Father Zhao of Shang), 주문왕정(周文王鼎, Square Cauldron for King Wen of the Zhou), 선덕로(宣德爐, Xuande Incense Burner)

■ 투고일 2020년 3월 16일 | 심사개시일 2020년 4월 1일 | 심사완료일 2020년 4월 22일 ■

참고문헌

1. 사료

『舊唐書』
『丹陵遺稿』
『湛軒書』
『洞天清錄集』
『宣和博古圖』
『宋史』
『新唐書』
『燕巖集』
『熱河日記』
『英祖實錄』
『雲煙過眼錄』
『弘齋全書』

2. 한국어 문헌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의 원당 I - 화성 용주사』, 2016.

원종필, 「송대 문인들의 금석기물에 대한 인식 고찰-금석기물 관련 저술의 序跋文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中國人文科學』40, 2008.

유경희·이용진, 「용주사 소장 正祖代 王室 內賜品」, 『미술자료』88, 국립중앙박물관, 2015.

이용진, 「고려시대 정형청자 연구」, 『미술사학연구』252, 2006.

_____, 「宋代 工藝批評書들과 鑑識眼」, 『미술사학』30, 2015.

_____, 「조선후기 古銅器 수집과 감상」, 『동양미술사학』30, 2018.

張光直 著·윤내현 譯, 『商文明』, 민음사, 1993.

張光直 著·이철 譯, 『신화 미술 제사』, 東文選, 1997.

3. 동양어 문헌

王 牧, 「中國南方地區宋元時期的仿古青銅器」, 『南方文物』, 2011-3.

張光遠, 「大明宣德爐」, 『故宮文物』32, 國立故宮博物院, 1985.

- 田艺景, 「浦松齡墓出土宣德炉浅说」, 『浦松齡研究』, 浦松齡紀念館, 2015.
- 陳芳妹, 「宋古器物學的興起與宋仿古銅器」, 『美術史研究集刊』10期, 2001.
- , 「追三代於鼎彝之間-宋代の考古から玩古への展開について」, 『美術研究』391, 東京文化財研究所, 2007.
- 許雅惠, 「明代末期古銅器知識與古銅器」, 『古色-十六至十八世紀藝術的仿古風』, 國立故宮博物院, 2003.
- , 「關於宋代古物學之研究與討論」, 『中國史學』21, 2011.
- , 「南宋金石收藏與中興情結」, 『美術史研究集刊』31期, 國立臺灣大學, 2011.
- , 許雅惠, 「新舊與雅俗-晚明的古銅器鑑賞」, 『故宮文物月刊』414期, 2017.

References

1. Primary Sources

- Damhōnsō* [The Collected Works of Hong Taeyong].
- Dongtian qingluji* [Pure Records of the Cave Heaven].
- Hongjae chōnsō* [The Collected Works of King Chōngjo].
- Jiutangshu* [Old Book of the Tang].
- Songshi* [History of Song Dynasty].
- Tanlüngyugo* [The Collected Works of I Yunyōng].
- Xintangshu* [New Book of the Tang].
- Xuanhebogutu* [Illustrated Catalogue on the Ancient Vessels of the Xuanhe Reign].
- Yōnamchip* [The Collected Works of Bak Jiwon].
- Yōlhailki* [Diary on the Rehe Travels].
- Yōngjo Sillok* [The Annals of King Yōngjo].
- Yunyan guoyanlu* [Record of Clouds and Mist That Have Passed before My Ryes].

2. Secondary Sources in Korean

- I, Yongjin (Lee, Yongjin), “Koryō sidae chōnghyōng chōngja yōngu [Ding-shaped celadon vessels of the Koryō period]”, *Misulshak yōngu* 252 (2006): 153-190.
- , “Songdae kongye pipyōngsōdūl kwa gamsigan [The critical books of crafts and connoisseurship of Song dynasty]”, *Misulshak* 30 (2015): 341-368.
- , “Chosōn hugi kodong-ki sujip kwa kamsang [The collecting and appreciation of Chinese bronzes of late Chosōn period]”, *Tongyang misulshak* 30 (2018): 110-142.
- Kungnipchungangbangmulgwan (National Museum of Korea), *Chosōn ūi Wondang I - Hwasung Yōngjusa* [Royal Temples of the Joseon Dynasty I -Yongju-sa Temple at Hwaseong], 2016.
- Won, Jongpil (Won, Jongpil), “Songdae munindūl ūi kŭmsōk kimul e taehan insik koch'al –kŭmsōk kimul kwanlyōn chōsul-ūi sō-balmun e taehan bunsōk ūl chungsim ūro [The perception on epigraphy of literati in Song dynasty]”, *Chungguk immin kwahak* 40 (2008): 533-559.
- Yu, Kyōghi (Ryu, Kyunghee) and I, Yongjin (Lee, Yongjin), “Yōngjusa sojang Chōngjodae wangsil naesapum [Yōngjusa, praying temple for royal family during the reign of King Chōngjo and the royal gifts]”,

Misulcharyo 88 (2015): 143-163.

Zhang, Guangzhi (Jang, Kwang Zik), trans. by Yun, Naehyön (Yoon, Naehyun), *Sangmunnyöng* [Shang civilizations], Minümsa (1993).

_____, trans. by I, Chöl (Lee, Chul), *Sinhwa misul Chesa* [Art, Myth, and Ritual], Tongmunsön (1997).

3. Secondary Sources in Chinese and Japanese

Chen, Fang mei, “Guqiwxuede xingqi yu songfanggutongqi [The rise of Song antiquarianism and the imitation of Archaic Bronze]”, *Meishushi yanjiu jikan* 10 (2001): 48-53.

_____, trans. by Kim, Li yan, “Zhuisandai yu dingyizhijian-Song dai cong Kaogu dao Wangu de zhuanbian [Seeking the three dynasties among the ritual vessels of old: The Sung Dynasty shifts from “investigating antiquity” to “appreciating antiquity”], *The Bijutsu Kenkyu* 391 (2007).

Hsu, Yahwei, “Mingdai moqi gutongqi zhishi yu fanggu tong qi [Knowledge on antique bronzes and their reproduction during the late Ming]”, *Through the Prism of the Past: Antiquarian Trends Chinese Art of the 16th to 18th Century*, Taipei: National Palace Museum (2003).

_____, “Nansong jinshi shoucang yu zhongxing qingjie [Antiquarian trends in the dynastic revival of the Southern Song]”, *Meishushi yanjiu jikan* 31 (2011): 1-60.

_____, “Guanyu songdai guwu xue zhi yan jiu yu taolun [Research and Discussion on the study of the Ritual Vessels in Song Dynasty]”, *Zhongguo shixue* 21 (2011): 67-77.

_____, “Xinjiu yu yasu-Wan mingde gutongqi jianshang [Connoisseurship of antique bronzes during the late Ming period]”, *The National Palace Museum Monthly of Chinese Art* 414 (2017): 34-46.

Tian, Yijing, “Pusonglingmu chutu xuandelu qianshuo [A Study on the Xuandelu excavated from PusonglingMu]”, *Pusongling yanjiu* 2015-1 (2015): 134-138.

Wang, Mu, “Zhongguo nanfang diqu song yuan shiqi de fanggu qing tongqi [The imitating antique bronzes of Song and Yuan Dynasties in Southern China]”, *Nanfangwenwu*, no. 3 (2011): 143-156.

Zhang, Guangyuan, “Daming Xuandelu [Xuandelu of the Ming dynasty]”, *Gugung wenwu* 32 (1985): 4-16.

국문초록

중국 고동기 鼎의 방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대 무측천을 시작으로 송대 휘종의 九鼎 방제는 불안한 권력을 안정시키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송대 사대부들이 고동기를 연구의 대상에서 완호지물로 인식하면서 鼎을 비롯한 고동기는 일상생활의 대상이 되었다. 鼎은 일상화된 明窓淨几의 하나인 향로로 용도가 바뀌었고, 수요가 많아지면서 鼎의 방제는 많아졌으며, 명청대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었다. 명청대에는 形과 款識를 유지한 〈상소부정〉과 〈주문왕정〉 등의 방제와 함께 관지는 생략하고 形만 유지한 〈선덕로〉의 제작과 이를 방제한 仿선덕로도 제작되었다. 鼎의 방제는 形과 款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조형의 원칙이었지만, 명대 선덕로는 形만 유지한 방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덕로의 등장은 또 다른 방제를 가져와 선덕로를 변형하여 형과 관지를 모두 갖춘 선덕로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중국의 고동기 방제는 우리나라의 고려와 조선에도 영향을 미쳐 고려시대에는 『선화박고도』의 〈상소부정〉을 방제한 청자상소부정을 제작하였고, 방제 단계를 지나 고려식으로 변화한 청자 鼎의 방제도 이루어졌다. 조선시대에는 〈주문왕정〉과 〈선덕로〉가 주요한 고동 수집과 감상의 대상품이 되었고, 청에서 제작한 방제 주문왕정과 선덕로가 유입, 사용되었다.

중국 고동기 鼎의 방제는 권력의 상징물에서 일상생활용품으로 변화되는 공예품의 사용 경향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원형을 모방한 방제의 단계를 지나 원형과는 다른 방제품이 제작되어 방제가 새로운 방제를 낳으며 보편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 Imitation of Chinese *Ding* Bronze Tripods as well as the Trends in and Influence of Their Imitations

Lee Yong Jin*

Ding, a type of ancient Chinese bronze tripod, were first imitated by later peoples in China to support their political goals. Empress Wu (Wu Zetian) of the Tang Dynasty and Emperor Huizong of the Song Dynasty imitated Nine Tripod Ding Vessels (a collection of *ding* cast by the mythical Yu the Great of the Xia Dynasty) in order to reinforce and legitimize their sovereign power. However, as the literati of the Song Dynasty began to perceive ancient Chinese vessels as items for enjoyment rather than objects of study, these vessels, including *ding*, were converted into household goods. *Ding* came to be routinely utilized as incense burners in the study. As the demand for *ding* increased, greater numbers of copies were produced. This trend of imitating *ding* vessels continued through the Ming and Qing periods. During these times, imitations of *Shang Zhao Fu ding* (Square Cauldron for Father Zhao of Shang) and *Zhou Wen Wang ding* (Square Cauldron for King Wen of the Zhou) were produced while maintaining their shapes and inscriptions. Moreover, imitations of Xuande incense burners that maintained the original form but without any inscriptions were produced, as well as reproductions bearing new inscriptions. Maintaining the original forms and inscriptions wa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properly imitating *ding*, but Xuande incense burners from the Ming Dynasty reproduced only the original forms. Nevertheless, the emergence of Xuande incense burners in the Ming period led to the imitation of Xuande incense burners equipped with their original shapes but with altered inscriptions.

Ancient Chinese bronze vessels were also reproduced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In the Goryeo Dynasty, as depicted in the catalogue *Xuande bogu tu* (Illustrations of Antiques from the Xuande Period), celadon *ding* in imitation of *Shang Zhao Fu ding* were produced. Some *ding* wares made in celadon were modified into Goryeo style. In the Joseon period, *Zhou Wen Wang ding* and Xuande incense burners became the most common antiques for collection and appreciation. Reproductions of *Zhou Wen Wang ding* and Xuande incense burners were introduced from Qing China and used in Joseon.

The imitation of ancient Chinese bronze vessels reflected the trend of crafts shifting from a symbol of power to items of daily use. Furthermore, it serves as a significant example of the process of imitation leading to the popularization of transformed reproductions of traditional works.